# 천국전문가

## (눅8:16-25)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9.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20.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22.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23.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전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 스페셜리스트' '천국 expert' '천국 전문가'

여러분, 지난해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에 빗물이 몰리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우면산 사고가 일어난 7월 어느 날, 분당에서 용인 외고에 다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

생이 분당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가, 강남역 부근에서 버스가 물에 잠겨서 3시간 동안을 꼼작 못하고 버스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다 기진맥진해 가지고 겨우 버스 바깥으로 나온 이 여학생이,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1시간 동안을 쉬다가 겨우 추스르고 분당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차장 바깥으로 보이는 서울시내 지하철역마다 폐쇄돼서 물에 잠긴 채 이용할 수 없다고 표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7월 16일 안산시 재난안전과에서 이 여학생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재난안전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감사패를 수여합니까?
이 일 년 사이에 이 고3이 된 여학생이 논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어떤 제목의 논문이냐 하면, 길어요, 논문 제목이.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유역 홍수 위험성 예측과 해결방안-안산천 화정천 유역을 중심으로'
안산천과 화정천은 그 유명한 시화호로 들어가는 지천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유역 홍수 위험성 예측과 해결방안이라는 이 논문을 써서 안산시 이 재난안전과가 감사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일 년 동안 논문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용인 외고에서 빗물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빗물전문가'
참 대단하지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참 당찬 것 같아요, 당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견스럽고.
근데 이런 물에 대한 관심이 없던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나무'라는 동아리에 그냥 무심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나무'라는 환경에 관심을 갖는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몽골지역에 가서, 메마른 지역을 한 지방을 골라 1주일동안 나무를 심는 봉사를 했는데, 그 1주일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더위 속에서 나무를 심는 수고를 하면서 한 번도 샤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관심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첫 번째 관심으로.

그 관심 속에서 강남역에서 3시간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빗물이 도시에 홍수로 임할 때에 미치는 재난을 어떻게 예측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문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빗물전문가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 이 논문을 가지고 일본에서 있었던 유네스코 제2차 청년 포럼에서, <재난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 포럼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첫째 필수조건이 뭡니까?
관심, 그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이에요.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현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현실! 그 특정분야가.
이게 필수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되도 1등 전문가 2등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문가가 되려면 필수조건이 뭐냐 하면, 그 특정분야가 첫 번째 관심이고 첫 번째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욕탕에서 우리 가끔 이런 사람 봐요. 정말 확~ 주먹으로 꿀밤을 한대 때렸으면 좋을 사람이 있어요.
물을 콸콸콸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양치질은 얼마나 또 오래 하는지 끝없이~ 끝없이 양치질을 하는데 물은 콸콸 콸콸 콸콸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을 쓸 줄은 알지만, 물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거나, 첫 번째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물은 많~이 쓰지만, 절대 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물 전문가는 절대 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오늘 등불에 대한 비유말씀이 다시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잖아요,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등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등불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 하시려는 게 뭡니까?
전문가라는 거예요.

왜 등불입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등불이 비추어지면 그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움 속에 묻혀있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에 종종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앵커와 대담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볼라벤 태풍이 몰려온다 그럴 때, 기상관측 전문가가 나타나서 볼라벤이라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풍 볼라벤이라는 이름만 알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가, 이 전문가가 나타나서 '중심 기압은 얼마이고 풍속은 얼마이고 지금 어디를 거쳐 오고 있고,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밝혀 줍니다.
볼라벤에 대해서 알려줘요.
어둠 속에 묻혀있던 볼라벤 태풍에 대해 알려주고, 그리고 대책을 밝혀주고 우리가 행동할 길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등불이라는 것은 시각과 연관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또 청각과 연관된 이야기를 갖다 붙이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봉하마을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움직임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 정치 쇼라고 비난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등불이 진짜 등불이라서, 참 의미를 알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불,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등불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
무엇인가는 밝혀줘야 되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전문가 입니까?
그 용인 외고에 다니는 여학생은 물에 대한 관심, 물이 제1현실이 되었으면서, 그 현실에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서 빗물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전문가 입니까?
천국전문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전문가.
천국전문가가 되어서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의 첫째 필수조건은 여러분, 특정분야가 제1현실감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야에 사건과 사실과 상황을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전문가에요.

천국전문가의 첫째조건은 뭐냐 하면, 천국이 첫 번째 관심이어야 하고 천국이 첫 번째 내 마음을 빼앗기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불이라는 것은 현실감이 타오르는 걸 말해요, 현실감이 타오르는 것.
물을 콸콸콸 쓰고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물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 물에 대한 현실감이 타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학생은 물에 대한 관심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현실감이 타오르는 걸 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현실감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몰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전문가가 무엇을 밝혀주는 것일까요?
천국전문가는 특이하게 천국에 대한 현실감으로 불타오를 때, 그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불빛으로 들이대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실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현실감이 타오르는 등불에 빛이 없는 한, 이 세상은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실에 대해

서 그 참 의미가 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람 한 점 일어나는 것, 풍랑 한 점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접근하지 않는 한, 참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첫 번째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계신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첫 번째 현실로 보고서 제2, 제3의 현실로 이 세상을 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제1현실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 현실감이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일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비밀들, 참 의미들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1현실 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실연당한 아가씨에게 세상이 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의미가 우울합니다, 세상의 의미가 허무합니다, 애인을 잃고 난 이 아가씨의 마음속에는.
왜 그렇습니까? 애인이라는 제1현실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용인 외고 여학생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 물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그 현실감을 통해서, 빗물 때문에 홍수가 난 도시지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내는 거예요.
등불이 돼서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너희들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다~ 나름대로 등불이 되어서 등불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밝혀내고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느냐? 이 얘기에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이 제1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1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건과 사실과 상황에 대한 참 의미가 밝혀지고 인생이 헛방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지요.
그 가장 근본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는다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혈연관계가 무엇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천국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그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일 때,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천국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내게.

이 용인 외고 여학생에게 물이 가장 첫 번째 관심사인 것처럼, 첫 번째 현실인 것처럼, 천국이 현실인 상태에서, 이 세상의 혈연관계를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영적인 혈연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인다 이겁니다.
밝혀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연관계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를 죽이고, 엄마가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예는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자! 태풍 정말 볼라벤이 초속 50m, 시속 그러니까 뭐 180km 200km가 가까이 됩니다.
200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부는 이 바다에서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자들은 마땅히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패닉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주무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전문가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하는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의 현실감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그 등불의 빛으로 풍랑이라는 것을 조명해 봤을 때, 풍랑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결코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지 않는 불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풍랑을 볼 때, 이 풍랑은 곧 나를 죽이는 이유가 됩니다, 공포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어느 말이 옳은 말이냐 이겁니다, 어느 말이.
천국의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지 않고서는, 내게 주어지고 있는 내 가족에게 해당되는 사건 사고 뭐 상황,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동안 좋던 것, 재물 학벌 명예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 예쁘다 그래 주는 것, 훌륭하다 그래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천국 현실감이 불타오르면서, 그 천국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등불의 빛으로, 그 동안 좋은 것을 보니까 그 의미가 보여 지는데, 도저히 마음으로 잡아선 안 되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물을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오물이 가까이 있으면 '어~이쿠' 하고 피합니다.
그런 것처럼 재물이라든지, 학벌에 의한 명예라든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맞게 기능적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절대 마음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마음으로 붙잡으면 손으로 오물을, 똥오줌을 붙잡는 것과 똑같이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이 현실감의 등불, 천국 현실감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볼 때 보여 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국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 재산을 보니까, 그건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 보존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천국 현실감이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 천국의 전문가들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뚜껑을 열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천국을 느껴야만 됩니다.
천국이 현실로서, 천국 현실감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자식에게 일어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일어나는,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독도문제 이런 거 알 길이 없어요.
천국 현실감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도대체 독도문제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근접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모르는 것이에요.
등불이 돼야 됩니다.
천국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탁월한 전문가는 되지 못해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필수조건 천국이 제1번의 관심이고 첫 번째의 현실이 되어서, 천국 현실감이 마음에서 불타오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이 세상이 두 번째 세 번째 현실로 밀려나야, 천국이 첫 번째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령!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천국전문가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면, 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보이고, 참 의미가 보이고 다~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뚫린다는 얘기에요.

돈을 벌어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상태의 참 의미가 뚫려지면서 시원~해지고 감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다가오려는, 이 세상 안에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실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오직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 현실감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인생 한번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